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small>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small>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9. 7. 16.(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해외건설 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성호, 서기관 윤효석, 주무관 구현승 • ☎ (044) 201-3516, 3520, 3523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1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기업 해외현장 파견 청년 26명 인턴십 성공 수료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일·환 재기 공기업 공동 해외 청년인턴십 종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 13개국 현장
- 1기 성공 경험 토대로 2기 모집(10월 예정)에서 참여 공기업 확대키로

“여성 엔지니어로서 이슬람국가의 건설현장경험은 앞으로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함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외인프라 사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본다.

- 한국토지공사 방글라데시 인턴 수기 중 일부 발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하나로서 해외 인프라 분야 관련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1기 공기업 공동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이 지난 7월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제1기 공기업 공동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에는 26명이 참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기업의 13개국 해외건설 현장에서 해외건설 경험을 쌓았다.
 - * LH(쿠웨이트, 베트남, 인도, 미얀마, 볼리비아), 한국수자원공사(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도로공사(에티오피아, 모리셔스, 방글라데시), 한국철도시설공단(중국, 인도네시아)
 - 이 중 우수 인턴 수료자는 해당 공기업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채용 가점 제도에 따라 입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부는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에 대한 호응이 높음에 따라 금년 10월경 모집 예정인 제2기 인턴은 당초 참여 공기업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해외 인프라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과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행 및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은 2012년 이후 124개 중소·중견 건설업체 2,000여 명의 신규 채용 및 66개국 415개 해외현장 파견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4개국 64명의 인원이 확정되어 새로 해외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 ‘18년 신규도입된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하반기 모집할 해외 인프라 공기업 인턴은 물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국제교통포럼(ITF) 등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국제기구에 근무할 인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파견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심의 등을 거쳐 선발되면 훈련비, 파견비 및 체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 기타 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교육훈련실 (02-3406-1033, bs603@icak.or.kr)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문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차세대 해외 전문인력을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향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윤효석 서기관(☎ 044-201-35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드마대교, 나와 내 꿈을 이어준다

정은지 (한국도로공사, '19.1.~'19.7)

1. 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 파드마 대교 사업현장

해외건설현장에서 토목 기술자로서 근무하는 것은 나에게 막연한 꿈이었다. 한국의 토목공학기술이 필요한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며, 한국토목기술의 국제적인 위상을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2018년 해외플랜트 건설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하며 이론을 쌓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공기업 공동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는 2018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선정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힘든 나라이며, OECD 회원국 중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에 인턴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사업비 3.5조원의 파드마 대교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감리대표 주간사인 한국도로공사 인턴업무를 통하여, 역사적인 교량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작업인력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싶었다.

2. 교량사업수행의 애로사항, 바다만큼 험한 파드마 강

파드마 대교 현장의 인턴업무는 크게 육상부와 하상부로 나누어진다. 육상부에서는 교량자재 제작과 시공방법 타당성에 대한 감리업무가 시행되었으며, 하상부에서는 철근 구조물과 강관시공 감리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방글라데시 기후와 하천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모기는 청바지를 뚫고서 물기 일쑤였으며, 각종 벌레와 곤충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다. 무더운 여름에는 현장에 가져간 얼음물이 금세 뜨거운 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전경이 보이는 크레인에 올라 휴식할 때면 시원한 얼음물을 한번이라도 들이켜는 것이 소원이었다.

파드마 강은 폭 6.15km로서 한강 폭의 5.6배이며, 국토를 동서로 양분하는 큰 강이다. 예측 불가한 하상변화로 인해 제방이 구축되지 않은 지반은 침식되기 쉬웠고, 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건물의 붕괴는 예삿일이었다. 특히 하상부는 강 위 40개의 교각에서 각각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우기에는 보트가 종종 출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고립되었으며, 50°C에 육박하는 강관파일 점검에 탈진하는 인부들의 소식을 들으며, 교량현장의 위험성과 고된 작업 난이도를 몸소 체험하였다.



높이 36m의 Crane에서 내려다본 사업전경



보트가 이동수단인 상하부공 건설현장

3. 외국 시공사 감리현장에서 한국의 안전문화를 제안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도심의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느슨한 안전규정과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국민의 식이다. 빈번한 교통사고에도 횡단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며 뚜렷한 교통체계도 없다. 이처럼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건설 현장 감리사로서 더더욱 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현장의 시공 및 감리 안전 관리자는 모두 방글라데시 현지인이었고, 이들은 안전보다는 시공속도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감리사는 국내의 선진 안전문화를 제안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현장관리 체계를 꾸준히 구축하였다. 한 예로, 하상부의 좁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의 부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미비한 안전시설로 인해 작업인부가 추락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발주처에 요구했으며,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가까이에서 경험한 핵심 외국 인력, 그들의 특출한 업무능력

파드마 사업현장에는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시공사인 중국, 그리고 감리사인 한국의 인력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현장의 핵심의제에 관한 회의가 열릴 때면 우리나라 인력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알고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분들이 가진 전문지식을 외국어로 구사하여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작은 아쉬움을 느끼고 계셨다. 인턴기간동안 외국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근무하며, 전문용어 하나조차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고, 적절한 언어선택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력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가히 가늠하기 힘들었다. 또한, 핵심 외국 인력은 국적을 막론하고 업무에 대한 높은 정확성과 책임감이 돋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처음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총괄자인 PM(Robert Aves)과 미

팅을 했을 당시, 공학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을 물었을 때 그는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대개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수년의 경험을 통해 함양한 자신의 업무능력을 주어진 위치에서 모두 발휘하려는 적극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이 해외시장에서 주요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더불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5. 이슬람국가의 건설현장,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자세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로서 여성인권수준이 낮다. 약 5000명의 파드마 사업건설인력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여성 엔지니어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발주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BBA(Bangladesh Bridge Authority)를 방문했을 때도 여성 공무원은 볼 수 없었다. 이번 인턴기회가 아니었더라면 이슬람 국가에서의 건설현장경험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동행자 없이 외출할 수 없었고, 업무를 수행할 때면 작업자들은 나를 신기한 시선으로 보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움츠러들었지만, 이 사업현장의 땅을 밟기 위해 거쳐 왔던 수많은 관문들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안전화 한 쪽의 밑창이 뜯어지면 반대쪽의 밑창도 뜯어내고 현장을 다녔으며, 시공방법 실험에는 시공 계획서를 미리 숙지하여 과정이 누락될 때마다 시공사에게 질문하였다. 야간에 진행되는 작업에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긴 시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였다.

해외건설현장에서 여성 엔지니어로서 받을 수 있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강점을 찾고 이를 압도적인 업무능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현장과 관련한 송부문서들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석하고,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턴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업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업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6. 해외건설현장 인턴,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강렬한 꿈을 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감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 자격요건은 10년 이상의 해외근무경력이다. 방글라데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특성상 제한적인 현장출입에도 불구하고, 단순 현장견학이 아닌 감리사 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값진 경험이었다. 교량현장 작업수행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특출한 업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겸비하여 업무소명과 책임을 다 하는 기술자들을 가까이서 보며, 그들처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엔지니어로서 이슬람국가의 건설현장경험은 앞으로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함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본다.



사업의 기술인력 중 전무한 여성엔지니어



설계도면과 현장실측의 일치여부 검토

볼리비아에서 인턴으로 살아남기

권소윤 (LH, '19.1.~'19.7)

지난 해 가을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공기업 공동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모집 공고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공자가 아닌 스페인어 구사자로서 실제 업무를 스페인어로 처리하면서도 해외, 특히나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회를 얻어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시에서는 볼리비아 부동산 그룹사 Grupo Empresarial La Fuente(이하 'GEL')이 주도하는 '**산타크루즈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현지 기업 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편 GEL사에서는 **신도시 아파트 선판매**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GEL의 **자문사**로, 다수의 신도시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마스터플랜 설계부터 시작하여,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 진행 상황 감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LH에서는 신도시 내 주택단지 건설 등 **볼리비아 진출 및 직접투자 추진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 인턴 파견, 그 준비 과정

본격 해외 파견 전, 국내에서 약 한 달간의 교육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2주는 공기업 공동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에 참여하는 4개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턴 모두가 함께 모여 **합숙하며 합동교육**을 받았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영어, 발표, 건축 교육뿐 아니라 해외 업무에 필요한 문화, 안전 교육**도 받았으며, 경영학 전공자로서 만나기 힘든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팀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주제, 자유 형식의 발표 과제였기에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으나, 역시나 다양한 분야 전공자가 모인 만큼 많은 의견이 모였고 익숙하지 않은 영상 편집을 시도해볼 만큼 재밌고 열의를 가지고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2주는 각 공사 본사로 출퇴근하며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파견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신도시 설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 낯선 땅에 파견되다

해외 파견 후에는 **현지 정치·경제 및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따라서 매일 현지 신문을 읽고 번역 및 요약하여 서면 보고하는 것이 정기 업무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볼리비아 부동산 또는 도시계획 사업 수행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아 번역하거나, 상시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 및 사무 업무 지원**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부동산법, 상법, 투자법 등 해외사업 핵심 법률 번역, 회의 녹취 및 번역, 현지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지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현지 동향 파악에 필요한 국가 기관 정보, 정부 시스템, 산업 구조 등이 한국과 달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신문 요약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각 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 스페인어에 대해서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지고, 업무 시간에 틈틈이 **볼리비아에 대한 개황과 자주 사용되는 스페인어 단어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며 업무 효율을 조금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현지 직원 대상 강연 모습

통·번역 업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GEL사의 산타크루즈 신도시 아파트 판매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장님께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 역사와 향후 산타크루즈 신도시의 홍보, 전략 방향성**을 강연하는 자리에서 **통역**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현지 통역가가 건강 문제로 통역을 진행할 수 없어 제가 대체 투입되었고, 당일 강연 자료와 배포물 번역과 동시에 통역 준비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통역은 아니었지만,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고, 통역 자료를 번역하며 중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철저한 준비와 리허설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 해외사업의 어려움을 느끼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시장조사, 통·번역 업무와는 별개로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볼리비아 현지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존 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의 사업 방식과 진행 수준을 파악**하는 업무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LH의 산타크루즈 신도시 내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검토를 위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현지 건설사와 협의 하에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와 한국산 자재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비교하여 **한국산 자재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현지 사업 방식을 파악하고, 현지 자재 검토를 진행하면서, 해외인프라 업무의 어려움 중 하나인 **'현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 개발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도시 계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고려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 계획이 볼리비아 도시 설계 및 필지 판매 단계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불분명한 필지를 선판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발전했거나 앞서 간 업무 및 사업 방식은 오히려 현지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한편 **현지 주거 문화 및 인식에 맞는 사업 방식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URUBO 필지 판매사무소 방문 ▲

또한 이 과정에서 언어적 역량을 최대한 살려 현지인 및 현지 업체와 LH 주재원 분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며 조금이나마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해외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업 현지화를 위해 진출 시장과 현지 정치·경제 상황 파악, 나아가 현지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양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방식의 표면적 차이에는 어떠한 문화·정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현지에서는 어떠한 사업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볼리비아 현지에서 현지 인원과 소통하며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업무 기간이 2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느끼고 배운 점들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업무에 적용해보고 아직 부족한 현업 경험을 더 채워 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아가 본 인턴 경험을 발판삼아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LRT 1단계 사업 인턴 생활기

박지현(한국철도시설공단 '19.1.~'19.7)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족자카르타라는 지역에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생활하여 본 적이 있던 저였기에, 금번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참여**는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카르타의 생활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펼쳐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 인턴사원으로서 철도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철도시장은 유럽, 일본 등의 철도선진국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개도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까지 앞 다투어 진출하고자 하는 등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일본의 공적자금으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MRT(한국의 지하철)를 개통하였으며, 중국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 및 자카르타 등의 대도시내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비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부재 등 열악한 교통 환경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으로 해마다 50억 달러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도라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대도시에 적극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는 1단계 경전철 프로젝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카르타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교통 구축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국내의 철도시스템 참여사가 많은 땀과 노력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은 한국 철도산업에 있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국내 토목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 철도토목공사를 수행한 경험은 많지만, 철도공단과 국내 철도 민간기업이 연합하여 국내의 철도시스템을 해외에 진출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인턴사원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인니에 전파하는 현장을 몸소 느끼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인턴사원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쌓고, 다양한 업무를 직접 부딪치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저였기에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현장 사무소에서 공단 직원, 국내 및 인니현지 협력업체 직원, 인니 현지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공단 직원과 현지채용 직원들과의 업무협업의 시, 인니 현지 협력업체와의 회의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하여 간혹 현지인이 영어구사가 힘들어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저의 개인역량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니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등의 추가 철도사업 수주를 위해 인니 철도사업 동향과 관련 정보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수집 및 보고를 담당하며, 공단의 추가 사업 수주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단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현지채용 직원들의 인력·근무 관리 및 현장 차량관리, 사무실 비품 관리 등을 하며 공단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관리적인 노하우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탓에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의 무게감 외에 열악한 환경이라는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가건물 안에서 8시간 넘게 근무하여야 하고, 더운 날씨 탓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해야만 하는 실내 환경이다 보니, 몸살감기 등의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들이 거의 2~3개월 마다 감기몸살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며 해외철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능숙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전철 1단계 무결점 개통을 위하여 시험운영 기간 동안 절차에 따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들이 발생하는 긴박한 현장에서도 공단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꼭 입사하여 지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철도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공단직원들과 함께 계속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저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인턴사원으로서 6개월간 보고 배운 점, 저의 Background, 그리고 저의 글로벌 감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한국철도의 세계 진출에 이바지 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LRT 경전철 열차 내부

역사 내부 전기실

현지직원과 회의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을 통해 해외철도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멋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인도네시아 교환학생 시절을 보내 본 저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직접 느꼈고,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철도박람회 ('19.03.20~03.22)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철도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철도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니 철도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카르타 진출은 인도네시아 심장부에 한국 철도 기술력을 알리고 인도네시아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해외의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하여 한국철도가 해외 국가의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제가 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철도 해외사업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카르타 철도 사업 박람회 참석

필리핀 Angat Dam 인턴 체험기

문근호 (한국수자원공사, '19.1.~'19.7)

필리핀 Angat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로, TOO(Take - Own - Operate)로 발전설비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로써 시설용량은 총 218MW이며 주발전기 (50MW)×4기, 보조발전기(6MW)×3기 및 각각 발전기에 해당하는 변압기 등 발전설비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발전기에서 나오는 용수는 관계용수로 사용되며 Angat Dam에서 부스토스 댐으로 관을 연결해서 21CMS 만큼을 방류하고, 보조발전기에서 나오는 용수는 생활용수로서 사용되며 Angat Dam에서 IPO Dam으로 자연방류해서 46CMS 만큼 보내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크게 Maintenance team과 Operation team으로 나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비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지만, 결함 및 누수 발생 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Level 4와 9의 크레인 설비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현대화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자는 Angat Dam 현장 발전소에서 인턴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Angat Dam과 제가 근무하고있는 발전소내에 사무실 사진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수력발전소설비 설계기준과 소수력발전소 설계 매뉴얼 자료 조사 및 약술보고뿐만아니라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K-water 직원분들의 간단한 업무 보조와 시설 내에 설비에 누수나 결함이 발생하면, 현장 기술 근로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현재 상황과 조치 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직원분들께 간단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업무와 더불어 여수로, 비상용수공급시설과 같은 시설 점검 및 영문서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부족한 점과 개개인의 역량을 상당 부분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현재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께서도 편견 없이 인턴들을 대해주시고, 또한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에 다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직문화에 이해를 돕는 말씀과 향후 취업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과 격려도 아끼시지 않고 해주셔서 직원분들과 가까워지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유용한 정보들을 직원분들께서 공유해주시고, 수시로 생활면에서도 직원분들께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낯선 환경, 날씨인 점을 제외하고는 환경적으로 적응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해외인턴들을 위해 각국에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조사 한 뒤, 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주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질병에 감염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현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생활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직원분께서 직접 동행하여 병원에 수납부터 진료 및 치료까지 보호자를 맡아주셨고, 다른 직원분께서는 죽까지 끓여주시는 등 많은 부분 신경써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프라 청년인턴으로 발탁이 되어 책으로만 배우던 전공 지식을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한 책에 나오지 않는 면밀한 부분도 상당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필리핀 사업단 Angat Dam수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계설비들과 이 기기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며 발전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턴들과는 차별화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업차 파견이 외국에서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일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국내 사업장과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실제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발전소가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직접 보고, 회의에도 참관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동시에 더 노력 해야겠다는 각오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하여 작은 목표들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뚜렷한 목표 없이 취업만을 생각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타지도 아닌 타국에서 가족과 친구의 손길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조금 더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발전소에서의 근무가 흥미로웠고, 청년인턴이 끝나면 발전소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발전소에 취업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 배운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실제 직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전소를 처음 접하게 된 인원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전소와 관련된 직무가 아니어도 인턴 기간 중 배우게 된 간단한 사무업무보조나 조직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쉽게 조직에 융화되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것입니다.